

서원운동

다니엘 1:1-9, 사도행전 19:8-20

최정웅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사과를 했다. 사실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자기가 기르던 개가 들어와서 설교 원고 절반을 물고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좀 짧을 테니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개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우리 목사님께 분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이다. (웃음) 우리 집은 개를 안 키운다. (웃음) 그래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적당히 하겠다. (웃음)

오늘 주제는 서원운동이다. 역사와 현실을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 다수의 힘이 큰 것 같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팀들은 소수였고, 따로 있었다. 소수의 성공자들을 통해서 조직이나 나라를 움직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않나? 임진왜란 때 우리가 풍전동화였는데 이순신이라는 장군 한 명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멸망을 면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임금이나 지도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고, 어떤 성공자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눈치를 먼저 채고, 엘리트가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찾아서 파고들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이 3단계고 이단들이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뭔가 능력을 얻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 최고 엘리트들 현장을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해 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크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악령을 체험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 능력으로 연마된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자도 살려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물론 실패한 사람도 살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한다. 그 중에서 리더, 서밋이 될 만한 성공자들을 살리는 응답을 교회가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잘 선별하고, 내 자식 네 자식 가리지 말고 잘 양육해서 성공자로 세워져, 해답 없는 성공자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우리나라 유수의 큰 교회인데, 다른 것은 다 잘 했지만 이것 하나는 섭섭하다고 했다. 그 교회가 돈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 100억 원 쯤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대, 종교까지 지도자를 길러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 교회는 지금도 후계자가 변변찮아서 계속 싸우고 있다. 훌륭한 램넌트 성공자를 길러내는 것은, 그 사람만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민족의 축복이다. 이런 것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서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다.

1. 서원운동의 의미

그러면 첫 번째로, 서원운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1) 원어로는 스킨(σχολη)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 ‘스쿨(school)’의 어원이다. 여기에 여기라는 뜻도 있다.

① 서원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철학 강단으로 썼던 집이었다. 그런 미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다고 한다.

② 또 어떤 이야기로는, 유대인들이 큰 도시마다 회당 옆에 학교를 다시 만들고, 그것을 신학교로 쓰기도 하고, 일반 학교로 써서 ‘질문의 집’, 또는 ‘암송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중에 계속 교육을 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양육하고 자기 단체의 지도자를 양육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이 한 주에 한번 회당에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회당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것이다. 두란노는 그 당시 유명한 선생의 이름이었다고 전해진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특별한 학교를 정하고, 주중에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미 있는 다른 서원을 빌린 것이다.

③ 로마 사람들이 세운 학교, 또는 도서관이라고도 한다. 대학 수준의 공부를 가르치는 토론의 장소였다고도 전해진다.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엘리트들 키워내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바울이 이런 곳을 파고든 것이다. 그래서 사회 리더, 지도자, 성공자들을 세우도록 도전한 것이다.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는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훈련시킨다. 우리 교회에 아직 전도제자가 안 나왔다. 어떤 교회는 벌써 7차까지 집중전도신학원을 했다. 전도제자가 7명, 5명, 3명 나오고 그랬다. 이 사람들

은 3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30명을 영접시키고, 3명을 교회화하는 것이다. 전국에 수십 명 전도제자가 나왔는데 우리교회에는 아직 없다. 여러분은 집중신학원 한 번 하고 다 했다, 더 할 것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온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이다. 계속 하는 동안에 그 제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런 현장을 파고들어서 전도했는가 싶다.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2) 우리는 세 가지 답을 가진 램넌트를 세워야, 그들이 성공자 살릴 참 성공자가 될 수 있다.

① 첫 번째 답은, 복음으로 자신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 ‘복음이 다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인류의 12가지 문제의 근본을 치유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바울이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다. 복음의 근본을 자꾸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기초 수준이 아니다. 처음이요 끝이다. 천국 가는 날에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들어갈 것이다. 그 고백 없이는 천국 문이 안 열린다. 그게 나의 센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센서다. 그래서,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 참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램넌트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나는 결코 망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론이 있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복음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교회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파라 처치(para church)에서는 그런 제자를 기른다. 잘 해줘서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 할 수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해야 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 상관없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너무하다, 매정하다 할 정도로 하더라. 그런데도 복음으로 살아남고, 끝까지 따라가는 펜찮은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것이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버리듯이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제자가 진짜 나와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을 세우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의 사람을 세워라, 복음의 사람을 찾아내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조금만 해도 빠지고 따지고 들어지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성공자가 될 수 없다.

② 두 번째는, 엘리트가 되는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내용이 복음이어야 할 뿐 아니라,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인본주의 쓰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엘리트가 되는 것은 불신자가 더 잘 한다. 우리 램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능력으로 엘리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보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이 열 배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다고 했다. 복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③ 세 번째는, 엘리트의 목적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에 자기의 성공과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 복음으로 결론난 성공자다. 조금만 잘 되면 전부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이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람을 세우는 서원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바울이 이것을 일으킨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성공자였다. 로마시민권자요, 지식인 엘리트였다. 그러다보니 그런 사람들이 가진 영적 문제와 갈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면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공자, 엘리트들 찾아내고, 또 성공자 살릴 램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위대한 속사도와 교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총독을 만난다. 성공자 살릴 산업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세우지 않나. 그러면서 본문에 나온 서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제자들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데오빌로, 빌레몬 같은 성공자들을 바울에게 붙이신 것이다. 더 나가서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시대적 성공자들을 일으키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셨다. 이 서원운동이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축복을 절대 맞출 수 없다. 가정의 문을 열어

한다.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엘리트들이 온다. 거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성공하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면서 복음을 주면, 이들이 자기 나라 가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직 우리교회는 외국인들을 위한 미션 홈이 없지 않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인데, 생각을 좀 해야 한다. 마음을 먹어야 한다.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또 집을 하나 샀다고 한다. 외국인을 위한 미션 홈이 모자라서 또 하나 샀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참 부러웠다. 언젠가 우리가 눈을 떠서 나를 넘어서 현장을 보고 세계 보는 눈이 열리겠나 싶어서 안타까웠다. 서원운동은 이런 운동이다. 따로 모여서 훈련시키고, 복음의 사람을 세우고, 방법을 가르치고 목표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2. 서원운동의 방법

이 서원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서원으로 파고들었고 어떻게 엘리트들을 세웠는지 내용이 나온다.

(1) 본격적으로 서원, 회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한 일이 있다. 사도행전 19:1-7에,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체험시킨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기에서 재현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우리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새벽기도, 심야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힘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힘을 얻고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부터 메시지를 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가르쳤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오는 마가다라방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체험한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다.

(2) 사도행전 19:8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이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션 홈과 지교회 운동이다.

(3) 이렇게 하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다. 이 ‘날마다’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매일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주는 일을 계속 한 것이다.

(4)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에 캠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루터 영화를 보고 왔다. 참 좋은 시대, 교회와 사명을 잃고 변질되어 다른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교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정말 제대로 하도록,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내가 왜 교회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느냐, 교회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지한 것이다. 폭동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막았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루터와 칼뱅은 농민, 노동자 편을 들지 않았으니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루터의 생각은 달랐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을 외친 것이다. 농민들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니, 루터는 폭동은 안 된다고 했다. 이념이 답이 아니었다. 오직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건 것이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네가 기록하고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할 때, ‘하루만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니까, 그도 인간인지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추기경이 허락해서 하루 동안 생각을 하는데, 악령과 허룻밤 내내 싸운 것이다. 악령은, ‘포기해라, 안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이고, 루터는 ‘아니다,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한 것이다. 그 다음날 가서 외친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쓴 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도 양보할 수 없다.”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5) 이 전도체험 속에서 일어난 것이 치유운동이었다. 사람들의 마음, 육신, 영혼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다. 우상 문화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재현되기를 바란다. 전도 속에서 자신과 현상이 치유되게 하는 것이 복음엘리트들을 세우는 서원운동의 열쇠였다.

(6)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9:20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수준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었다는 말이다. 내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

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도록 완전히 담이 나게 되었다. 이런 램넛트를 세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야 되었다. 이게 서원운동이다.

말씀을 마치겠다. 우리는 이 서원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세상에서 서밋은 한 명밖에 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전교 1등은 한 명 뿐이지만, 우리 램넛트가 복음으로 전교 1등 되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잠재력이 발견되면,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예능으로 서밋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독일을 돌아다녀 보니까 집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 독일이 정말 평준화된 사회를 만들었구나.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구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급어가 비슷하니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불만이 나온다.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서 싸우게 되고, 사회는 정말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미국에는 슬럼프가 있다. 너무 처진 것이다. 미국에는 진짜 거지가 많다. 부자들은 상상도 못할 부자들이 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꾸 폭동도 일어나고 총기사건도 일어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 이게 정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내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한다. 다만, 우리가 훌륭한 램넛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서밋이 될 수 있다. 축구만 잘 해도 지도자가 된다. 골프만 잘 해도 세계적 인물이 될 수 있다. 복음이 확실하면 어떤 분야로 가도 된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목표를 세워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어떤 청년은 골프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상당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더라.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 선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가 굉장히 순화될 것이다. 아낌없이 나눠주면 문제가 뭐 있겠나. 빌 게이츠는 에이즈를 정복하기 위해서 3조 원을 내놓았다. 그래서 위기가 많이 극복되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퇴치를 위해서 5조 원을 내놓았다. 이게 자유시장경제 원리 아닌가. 많이 벌고 많이 내놓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램넛트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현장을 찾게 되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램넛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는 집중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가는 길에서 한 마디만 제대로 해 줘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어떤 학생은 4학년 때 선생님이 ‘너는 자라서 과학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 말대로 나중에 훌륭한 과학 교수가 되었다. 선생님의 말 한 마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그 아이가 뛰어난 부분을 찾아주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산수를 망쳤다고 하면, ‘괜찮아, 너는 국어를 잘 하잖아. 너는 공을 잘 차잖아.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니까, 힘을 얻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못 찾아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가서는 어려움 당하도록 하게 하면 안 된다. 램넛트를 참 성공자로 세워야 되겠다. 램넛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이 가는 모든 분야가 새로워질 것이다. 램넛트는 직장 가서 ‘내가 이 일 해야 해?’ 하지 마라. 해달라는 일을 10배로 해 줘라. 심부름 좀 해 주면 어떤가. 10배로 해 줘 버려라.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될 것이다. 그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신경질이 나고 쓰러지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테니까. 24시 하면 하나님은 25시 축복을 주시고 영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다. 그래서 사도행전 19:21에, 자기의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로마를 바라보고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 그게 나의 로마다. 지금 와 있는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 삶 속에서 서원운동이 일어나는 한 순간, 남은 생애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당운동을 넘어서, 서원운동을 통하여 세계 살리는 일을 했던 바울의 사적을 살펴보면, 오늘의 나의 회당 사역, 서원 사역은 무엇인가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만 다루고, 그만 싸우고, 건전한 것을 위하여 싸우고 다루게 하시며, 이 민족이 통일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나, 나의 것, 나의 현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